

## 금속노조 “산재 처리 기간 120일, 너무 길다” 노동부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규탄... 추정의 원칙 전면 확대 적용 촉구



금속노조가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추정의 원칙’ 전면 확대와 ‘선보장제도’ 즉각 도입 등 획기적인 단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가 9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가 9월 1일 발표한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이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규탄했다. 노동부 안은 평균 228일, 최장 4년이 걸리는 처리 기간을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회보장제도”라며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노동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계곤란에 시달리는 시간이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120일 아니라 60일, 30일 등 획

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쌍용 부위원장은 “추정의 원칙 전면 확대, 산재보험 선보장 즉각 도입으로 산재 노동자가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하는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 노동안전 종합 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산재 근절을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노동자 요구를 노동정책에 더 구체적으로 더 쉬운 말로 담아내야 한다. 그래야 산재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21년 산재보험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투쟁과 농성을 진행했다. 2024년 6월 울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같은 문제로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7월 국회에서 산재 처리 지연 피해 증언대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하기도 했다.

주민영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금속노조의 치열한 투쟁으로 2021년 노동부와 산재 처리 기간 단축, 사업주 의견 제출 지연 문제 해소, 추정의 원칙 적용 확대 및 질판위 심의 제외, 역학조사 및 특별진찰 기간 준수, 특별진

찰 결과에 따른 질판위 심의 제외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기간 단축 방안의 보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지연 문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6개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21년 평균 176일이었던 처리 기간은 2024년 228일로, 3년 만에 50일 넘게 늘어 상황이 더 악화했다.

한편,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 노동부는 산재 카르텔이라는 말로 산재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덜기는커녕 외면하고 낙인찍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 금속노조·민주일반노조, 회계공시·타임오프 폐기 촉구 공동투쟁대회 열어

금속노조와 민주일반노조가 13일 오후 서울 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 투쟁대회를 열고, 회계공시·타임오프 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두 노조는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반란 세력을 격리했지만 노동조합 말

살 도구인 회계 공시는 여전히 살아 있다”며 “감시·통제·탄압·강요가 회계 공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가 이 도구들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헌법의 복원이라 할 수 있느냐.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윤석열이 남긴 악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참여반 스마트안전 중대사태근절

# 2025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대회

노동자 참여로 건강한 일터

9.24(수) ~ 9.25(목)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

기후위기외곽성

국립중앙도서관

전국금속노동조합

마음을 열고 눈을 뜨자

## 13기 2년차 금속노조 교육활동가대회

일 시 : 2025년 9월 24일(수) 14시 ~ 25일(목) 11시

장 소 :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단양청소년수련원) (충북 단양군 단성면 대장2길 29-46)

대 상 : 지부, 지회(위원회), 분회 교육위원 및 교육담당자, 교육활동가 및 관심이 있는 조합원 (약 120명)

참가신청 : 해당 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준 비 물 : 개인 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등), 텀블러

프로그램 :

|       |                                                                                  |
|-------|----------------------------------------------------------------------------------|
| 역량강화  | 참여자 중심 학습 이론과 교육설계                                                               |
| 공동체활동 | 교육활동가로서 지난 한 해 돌아보기                                                              |
| 선택교육  | - 환경 학교 "생활속 유해물질 찾기"<br>- 반차별 학교 "차별은 불량품, 권리는 풀음선"<br>- 반전평화 학교 "노동자가 바라보는 전쟁" |
| 즐길거리  | - 캠프파이어 혹은 영화상영<br>- 2025년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전시                                         |

전국금속노동조합